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시민·환경운동 적극 참여”

익산사암련 지광스님



“자비와 나눔을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불교, 함께 하는 불교가 될 때 지역포교는 저절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익산사암련연합회는 (회장 지광, 승림사주지

사진) 15일 익산지역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20kg들이 백미 80가마를 익산시청에 기탁했다.

지광스님은 “이번에 마련한 백미는 지난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일부 축소하여 마련한 것이다.”

며 “사암련은 올해 봉축 행사를 준비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결제능력 상실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의견을 모았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세가 가장 강하다는 익산에서 93년 창립된 익산사암련연합회에 소속된 사암은 50여개이다.

익산사암련은 올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사찰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계층포교 활성화, 지역사회에서의 사찰의 지도적 위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 차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회장 지광스님(조



△익산사암련은 15일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을 위해 백미 80가마를 익산시청에 전달했다.

불우이웃에 백미 80가마 전달

법사제 시행 군·청년 포교 앞장

계종 총회위원은 말했다.

청년불자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스님 법사제를 실시하여 지역 청년회와 대불련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은 군부대 정기 법회 및 위문 행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군 장병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역 경실련 등 시민활동에 사암련 스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단체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 미륵사지석탑 앞 아파트 및 골프장 건설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있다. 익산사암련은 지역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팜플렛을 배포할 때 내 제작하여 지역 문화재 지킴이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pa.com

지리산 살리기 도보순례 8백50리 대장정 회향

“생명 평화·민족화해 한뜻 염원”

골프장 반대·위령제도

생명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도보순례단(단장 수경스님)의 850리 대장정이 18일 회향했다.

30명의 순례단이 참가한 가운데 16일간 지리산 일대와 산청 하동 구례를 돌아 남원에 도착한 순례단은 18일 실상사에서 회향식을 개최했다. 도보순례 참가자들은 지역과 종교, 이념의 벽을 허물고 민족화합과 지리산 보전을 위한 생명살리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다.

회향식에서 단장 수경스님은 “지리산 850리를 돌아보니 더욱 지리산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리산 살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인 자연과 파괴 반대운동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지리산 순례단은 이에 앞서 남원시 운봉면 가창리에 추진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도보순례단은 성명을 통해 “지리산 골프장 건설은 지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도보순례단의 850리 대장정 회향식이 18일 남원실상사에서 개최됐다.

리산을 개발해 자연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지리산은 지리산으로 그냥 놔두라”고 촉구했다.

16일간 순례단에 참여했던 안준환씨(남원시 운봉면, 농민)는 “지리산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다”며 “지리산을 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

있는 길임을 알았다. 순례하는 내내

지리산이 6·25 당시 좌우대립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은 26일 지리산 달궁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등 종교인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좌우대립으로 희생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pa.com

달라이라마 부시대통령 만나

美 티베트 지지 의사 표명

3주간 일정으로 미국내 8개 도시를 순회 방문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23일 백악관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회담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부시대통령은 달라이라마의 비폭력 운동에 공감을 나타내고 아울러 중국정부와 대화하려는 달라이라마의 끊임없는 노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부시대통령은 또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를 진전시키고 중국정부가 호의적인 반



응을 보이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사적인 만남이었다”며 “부시대통령이 매우 진지하고 인간적이었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참회하면 새삼 열려”

전주교도소 특별법회

전주교도소 특별법회 및 참회문 발표회가 17일 승천(일광사 주지) 원경(연화사 주지)스님, 이원일 법사(금산사 사무국장)를 비롯하여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특별법회에서 승천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간은 지구와 같이 윤회한다. 그런 만큼 죄의 업장을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참회문 발표회에는 이태호 불자 등 6명의 재소자가 ‘부처님의 진리로 새 삶을 열기까지’ ‘보고 싶은 어머니께’ 등의 참회문을 발표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봉선사 기우제 봉행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민)는 25일 조실 월운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등 전국의 극심한 가뭄 극복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봉행했다.



△올해말 개금불사를 통해 새황금가사를 입게되는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법주사 청동대불 개금불사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주지 석의)의 청동미륵대불의 개금불사가 한창이다.

총 12억원이 투입돼 연말에 완료되는 개금불사를 통해 새 황금가사를 입게 되는 청동미륵대불은 높이가 12층 아파트와 같은 33m. 무게가 점보비행기와 맞먹는 1백60t으로 청동입상(坐像)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그러나 용접 부위에 부식이 진행되면서 얼룩진 외관 때문에 불상으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자 법주사는 개금불사를 추진하게 됐다. 법주사는 불사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43263-1225

보은=김종근 기자

복지보건대 봉사단 발대

불교복지보건대학이 25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졸업생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불심봉사단을 발족했다. 봉사단은 명예학장인 성오스님을 단장으로 하고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을 이사로 영입, 보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불교복지보건대학 졸업생들은 기존 병원, 복지관 등에서 펼쳐오던 봉사활동 외에 가정 간병 봉사, 개인 간병봉사 등에 까지 활동을 넓힐 계획이다. 천미희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청소년 모악축제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20일 금산사 숲속 특별무대에서 청소년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청소년 모악축제(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모악축제에서는 금산사 개산 1400주년기념관에서 백암장및 사생대회가 열렸으며,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 주최로 사물놀이와 댄스경연대회도 개최됐다.

도영스님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6월3일 순국선열 천도제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일 오전 11시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오전 10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11시부터 서초구 및 강남구내 전몰 군경 및 순국선열, 서울 경찰청 소속 순직 경찰관 등 3천여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천도대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023460-5300

진각종

복지재단 대표 효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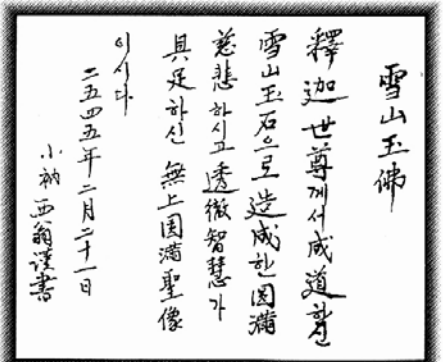
효암 통리원장(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사회법인 진각복지재단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 장지현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서리)으로 보직 임명됐다.

총화종

천안 만경사 천불전 낙성

천안 만경사(주지 청해)는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야옹(원로원장) 동광(총정)·남정(총무원장)스님의 증명에 천불전 낙성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411522-3895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추천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